

고2국어
비상

5(3) 다양한 지역의 글 읽기(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내신형·수능형·서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신형 기출 문제

최다 빈출 유형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보기>를 참고한 감상, 밑줄 친 구절의 의미, 글을 읽은 학생의 적절한 반응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글에 드러난 내용과 더불어 드러난 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철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9월 29일, 미카엘 제 전야]

베네치아에서 무엇보다도 내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민중이다. 필연적이고 무의식적인 존재인 거대한 대중 말이다. ㉠ 이들 일족은 재미 삼아 이 섬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그들과 합류하게 된 것도 우연한 계기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고난이 가져다준 교훈에 따라 그들은 가장 불리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안전지대를 찾은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자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이점이 되었고, 북쪽의 전지역이 여전히 암흑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현명하게 대처했다. 따라서 그들이 번창하고 부유해진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점차 집들이 뽁뽁이 들어서고, ㉡ 모래땅과 늪지는 암석처럼 단단한 지반으로 바뀌어 갔다. 집들은 조밀하게 심어진 나무들처럼 높이 솟구쳤다. 옆으로 확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한 치의 땅이라도 탐이 나는데, 처음부터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골목길도, 양편의 집들을 분리하고 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폭으로밖에 내지 않았다. 어쨌거나 그들에게는 물이 거리와 광장과 산책로를 대신했다.

뱀처럼 구불거리는 대운하는 세계의 어떤 도로에도 손색이 없고, 세계의 어떤 광장도 산마르코

광장 앞의 공간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공간이란 베네치아 본토가 반달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넓은 바다를 말한다. 베네치아가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성격의 도시인 것처럼 베네치아 사람들도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식사를 마치고 우선 도시 전체의 인상을 확실히 포착하기 위해 서둘러 숙소를 나섰다. 그리고 안내자도 없이 동서남북의 방위만을 확인하면서 도시의 미로 속으로 들어섰다. 도시는 크고 작은 운하들이 이리저리 교차하고 있었고, 또 그 위로는 크고 작은 다리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 도시 전체가 얼마나 좁고 번잡한지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골목은 대개 두 팔을 벌리면 닿을 정도의 폭이다. 아주 좁은 곳에서는 두 팔을 옆구리에 대기만 해도 팔꿈치가 벽에 닿는다. 물론 가끔가다 좀 넓은 길도 있고, 여기저기 작은 광장도 있기는 하지만 ㉣ 비교적 모든 공간이 좁다고 할 수 있다.

[10월 9일]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근사한 날이었다! 키오자 맞은편에 있는 펠레스트리나를 방문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그곳에 '무라치'라고 하는, 바다에 맞서는 거대한 방벽을 건설 중이다. 사람들은 돌 블록으로 이 방벽을 쌓고 있다. 이것은 연안을 바다로부터 격리하는, '리도'라고 하는 길다란 지협을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연안은 오래된 자연의 산물이다. 먼저 밀물과 썰물의 조류와 대지의 상호작용에 이어서 태국적 바다의 수면이 점차 낮아진 결과, 아드리아해의 위쪽 끝부분에 광활한 늪이 형성되었다. 그 늪은 밀물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지만 썰물 때에는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인간의 기술은 그 땅의 가장 높은 부분을 접수했으며, 그리하여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백 개의 섬으로 에워

싸인 베네치아가 탄생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은 썰물 때에도 주요 지점에 전함을 댈 수 있도록 늪에다 깊은 운하를 준설하였다.

㉔ 옛날 사람들이 지혜와 노력으로써 고안해 내고 실행한 것을, 이제는 현재의 우리가 그에 못지않은 지혜와 노력으로써 보존해야 할 것이다. 기다란 띠 모양의 물인 리도는 연안 호수를 바다와 갈라놓고 있는데,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두 곳뿐이다. 하나는 카스텔로 근처에 있고 또 하나는 그 맞은편 끝인 키오자 근처에 있다. 밀물은 보통 하루에 두 번씩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썰물도 하루에 두 번씩 나간다.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밀물 때에는 안쪽의 늪지대가 침수되는데, 가장 높은 곳은 물에 젖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그 존재가 눈에 보인다.

그러나 만일 바다가 새로운 길을 찾아 그 지협을 공격하며 제멋대로 드나든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리도와 펠레스트리나, 산피에트로 등지의 작은 마을들이 침수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바닷물이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삼켜 버려 그곳의 소통로도 막혀 버릴 것이다. 리도는 섬으로 변할 것이고, 지금은 그 배후에 있는 섬들이 지협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베네치아 사람들은 리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인간이 이미 점유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것을, 자연이 제멋대로 공격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파도가 유난히 높을 때는 바닷물이 단 두 곳으로만 들어올 수 있고, 다른 곳은 막혀 있다는 사실이 무척 다행스럽다. 아무리 맹렬하게 밀고 들어오려고 해도 바닷물은 들어올 수 없고, 몇 시간 후면 다시 썰물의 법칙에 따라 맹위를 누그러뜨린다.

어쨌든 베네치아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간다는 사실이 베네치아를 천 년 동안이나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고, 그들은 또 운하를 현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베네치아 건물이 나무들처럼 높이 솟구친 이유는 높이라는 공간적 특성 때문이다.
- ② 베네치아인들은 바닷물 수위를 활용하여 광활한 늪을 만들고, 그곳에 깊은 운하를 만들었다.
- ③ 리도로 인해 아드리아해의 위쪽 가장 높은 곳은 밀물이 밀려와도 그 존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 ④ 리도는 연안 호수와 바다를 갈라놓고 있으며 바닷물이 베네치아 본토까지 들어가는 것을 막아 준다.
- ⑤ 산마르코 광장 앞에는 반달 모양의 공터가 있으며 이는 세계의 어떤 광장보다도 독보적인 공간이다.

2. <보기>는 이 글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되는 사상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는 인간 중심주의가 있다. 인간 중심주의 관점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이분법적 관점을 바탕으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더 우월한 존재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이고 정복 지향적인 자연관을 나타낸다. 모든 자연은 인간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 ① 글쓴이는 베네치아인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이성을 발휘하여 자연을 개발하는 것이 결국 자연을 보존하는 길임을 역설하고 있다.
- ② 글쓴이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과 인간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관계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
- ③ 글쓴이는 자연을 점유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베네치아인들을 예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유를 짐작할 수 있다.

- ④ <보기> 관점에서 본다면 베네치아인들은 스스로를 변화시켜 자연에 순응하려는 노력을 거듭해 온 결과 새로운 자연관을 창출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글쓴이는 자연을 인간의 정신세계와 깊숙이 연관시키고 자연에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인간 중심적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3. 윗글을 읽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베네치아 사람들이 연안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 행동은 무엇인가?
- ② 베네치아 사람들이 '무라치'라는 방벽을 건설한 이유는 무엇인가?
- ③ 리도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글쓴이가 방문한 곳은 어디인가?
- ⑤ 리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이민족의 위협으로 인해 북부 지역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한 역사와 관련이 있다.
- ② ㉡ : 자연스러운 현상에 의해 베네치아의 땅이 점차 안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 ③ ㉢ : 글의 종류와 관련하여 글쓴이의 여행 일정이 드러난다.
- ④ ㉣ : 글쓴이가 베네치아를 보며 받은 전체적인 인상이다.
- ⑤ ㉣ :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러난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베네치아에서 무엇보다도 내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민중이다. 필연적이고 무의식적인 존재인 거대한 대중 말이다. 이들 일족은 재미 삼아 이 섬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그들과 합류하게 된 것도 우연한 계기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고난이 가져다준 교훈에

따라 그들은 가장 불리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안전지대를 찾은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자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이점이 되었고, 북쪽의 전 지역이 여전히 암흑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현명하게 대처했다. 따라서 그들이 번창하고 부유해진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나)

식사를 마치고 우선 도시 전체의 인상을 확실히 포착하기 위해 서둘러 숙소를 나섰다. 그리고 안내자도 없이 동서남북의 방위만을 확인하면서 도시의 미로 속으로 들어섰다. 도시는 크고 작은 운하들이 이리저리 교차하고 있었고, 또 그 위로는 크고 작은 다리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 도시 전체가 얼마나 좁고 번잡한지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골목은 대개 두 팔을 벌리면 닿을 정도의 폭이다. 아주 좁은 곳에서는 두 팔을 옆구리에 대기만 해도 팔꿈치가 벽에 닿는다. 물론 가끔가다 좀 넓은 길도 있고, 여기저기 작은 광장도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모든 공간이 좁다고 할 수 있다.

(다)

연안은 오래된 자연의 산물이다. 먼저 밀물과 썰물의 조류와 대지의 상호작용에 이어서 태곳적 바다의 수면이 점차 낮아진 결과, 아드리아해의 위쪽 끝부분에 광활한 늪이 형성되었다. 그 늪은 밀물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지만 썰물 때에는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인간의 기술은 그 땅의 가장 높은 부분을 접수했으며, 그리하여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백 개의 섬으로 에워싸인 베네치아가 탄생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은 썰물 때에도 주요 지점에 전함을 댈 수 있도록 늪에다 깊은 운하를 준설하였다.

(라)

그러나 만일 바다가 새로운 길을 찾아 그 지협을 공격하며 제멋대로 드나든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리도와 펠레스트리나, 산피에트로 등지의 작은 마을들이 침수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바닷물이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삼켜 버려 그곳의

소통로도 막혀 버릴 것이다. 리도는 섬으로 변할 것이고, 지금은 그 배후에 있는 섬들이 지협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베네치아 사람들은 리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인간이 이미 점유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것을, 자연이 제멋대로 공격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5. (나)~(마)를 읽은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글쓴이가 베네치아 민중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이들이 겪었던 상황에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한자 성어가 어울리는군.
- ② (나)는 베네치아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 글의 갈래의 특성인 여정과 견문이 드러나고 있군.
- ③ (다)에서 글쓴이가 자연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데,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군.
- ④ (다)는 베네치아의 탄생 과정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글쓴이가 베네치아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라)는 리도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바닷물이 새로운 길로 드나들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언급하며 글쓴이의 당부를 드러내고 있군.

[6~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케냐 사람들이 크고 곧은 나무를 보호한 데에는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 또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키쿠유 사람들은 베어지지 않고 서 있는 나무를 '숲의 벌목에 저항하는 나무'라는 뜻인 무레마키리티라 불렀으며, 베어진 나무들의 정령이 이 나무들에 깃들었다고 여겼다. 그리고 정령이 다른 나무로 옮겨 간 뒤에야 이 나무들을 벨 수 있었다. 사람들은 베어낼 나무에 나뭇가지를 기대어 놓았다가 다른 나무로 옮기거나, 나무를 베자마자 그 자리에 곧바로 또 다른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나무의 정령을 다른 나무로 옮겨 가게 했다. 그런 조심스러움이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은 것은 분명하다.

많은 공동체에서는 일반적으로 나무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나무나 관목을 정하고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위해 그 밑에 제물을 바쳤다. 키쿠유 사회에서는 이런 나무 가운데 하나가 무구모라 불리는 무화과나무였다. 모든 무화과나무가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키쿠유 제사장들은 무화과나무가 있는 곳에서만 제의를 올렸다. 제의가 열린 무화과나무와 그 주변은 신성한 곳이 되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집 가까이에 있는 무화과나무 근처에서는 땀감으로 쓸 잔가지를 주워 오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 나무는 '하느님의 나무'이기 때문이다.

(나)

인류 문명이 시작된 뒤로 나무는 식량과 약재, 건축 재료였을 뿐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신과 연결되는 장소였다. 나무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생명체 가운데 하나이므로, 인류가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정한 종류의 나무들은 영적으로 중요하다. 가나 남부의 많은 공동체는 백단향과 이로코, 리아나를 성스럽게 인식한다. 특히 가나 은코란자와 말라위 일대에 있는 신성한 숲들과 요루바족 여신 오순에게 바쳐진 나이지리아 오쇼그보 근처의 숲은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유네스코에서 세계 유산으로 지정했다.

(다)

나무가 주는 그늘과 공간의 영적 울림 때문에 나무는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나무 아래 모여 앞일을 의논하고, 찬반이 갈리는 문제에 관해 부족 어른이 판단을 내리고는 한다. 따라서 특정한 나무가 한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키쿠유족은 자녀 양육이 끝난 사람들을 공동체 생활 양식의 수호자이자 지혜로운 후견인으로 여겼다. 따라서 그들은 종재자이자 판관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부족의 어른 자리에 앉아 시이기나무 막대를 쥐고 있었다. 그것은 폭력

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표시였다. 이런 관례는 평화 협정에 조인하는 것만큼이나 구속력을 지녔고, 공동체 내부에서 그리고 공동체끼리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신성한 숲과 그 나무와 숲에 부여된 영적이고도 상징적인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나무는 언제나 우리의 동반자였다.

(라)

나는 그 나무가 한 사람의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오래 살아온 강건한 유기체가 되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캄캄한 흙과 눈부신 햇살과 축축한 물기에서 양분을 얻는 그런 여정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도, 나무는 여전히 신비로운 구석이 있다. 그렇게 위엄 있고 영구적인 생명이 그토록 작고 여린 것에서 비롯될 수 있다니, 뿌리는 아래로 가지는 위로 뻗은 모습은 아름답기만 하고, 그 복잡다단한 자연 변화는 우리의 과학 기술이 아무리 정교하게 발전해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사펠리나무에서 나온 목재의 절반 이상이 연기로 사라진다는 사실에 나는 당혹스러웠다. 그 나무는 베어져 쓰러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비바람을 견디고 빗물에 흠뻑 젖고, 건기에도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지에는 온갖 종류의 곤충들이 살았다. 가끔 가지가 한두 개쯤 부러지기도 하고, 여러 동물과 새들이 몸통에 구멍을 뚫거나 속을 파먹을 수도 있지만 나무는 쉽 없이 자라났다. 하지만 이제 그 나무는 없다. 살아 있기 보다는 죽어야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사람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마)

우리가 길러야 하는, 자연에 대한 사랑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자연, 특히 야생의 모습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채운다. 우리가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을 보살피려면 그것과 직접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 자연을 보고 냄새 맡고 만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을 잇을 것이고, 우리 영혼도 시들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요즘 아이들은 자연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거나 나무 한 그루 심어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달을 즈음에는 이미 때가 늦었을 것이다. 신성한 숲은 한번 사라지면 결코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6.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특정한 나무가 한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다.
- ② 나무는 공동체의 앞일을 의논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 ③ 자연을 직접 만나는 경험에서 자연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다.
- ④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이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았다.
- ⑤ 나무가 식량과 약재, 건축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인류는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인식한다.

7.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만 고른 것은?

<보기>

- ㉠ 글쓴이는 나무가 열매를 제공해 주거나 건축의 재료로 쓰이는 것 외에도 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구나.
- ㉡ 사펠리나무에 대해 무분별한 벌목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무의 대부분을 목재로 활용하기 때문이구나.
- ㉢ 나무는 아주 작은 존재에서 시작해서 크고 강인한 존재로 자라나는구나.
- ㉣ 키쿠유 사람들은 무화과나무를 신성히 여겨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잔가지만 주워서 땀감으로 사용했구나.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필수 유형

독서 영역에서 출제가 강화되고 있는 어휘 문제와, 글의 갈래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어휘 문제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용된 조사의 쓰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 내용과 어울리는 한자 성어를 묻는 문제, 문맥적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를 묻는 문제 등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꾸준한 학습을 통해 대비해야 합니다.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9월 29일, 미카엘 제 전야]

베네치아에서 무엇보다도 내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민중이다. 필연적이고 무의식적인 존재인 거대한 대중 말이다. ㉠ 이들 일족은 재미 삼아 이 섬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그들과 합류하게 된 것도 우연한 계기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고난이 가져다준 교훈에 따라 그들은 가장 불리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안전지대를 찾은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자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이점이 되었고, 북쪽의 전지역이 여전히 암흑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현명하게 대처했다. 따라서 그들이 번창하고 부유해진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점차 집들이 뻥뻥이 들어서고, 모래땅과 늪지는 암석처럼 단단한 지반으로 바뀌어 갔다. 집들은 ㉡ 조밀하게 심어진 나무들처럼 높이 솟구쳤다. 옆으로 확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람이란 마땅히 한 치의 땅이라도 탐이 나는데, 처음부터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골목길도, 양편의 집들을 분리하고 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폭으로밖에 내지 않았다. 어쨌거나 그들에게는 물이 거리와 광장과 산책로를 대신했다.

뱀처럼 구불거리는 대운하는 세계의 어떤 도로에도 손색이 없고, 세계의 어떤 광장도 산마르코 광장 앞의 공간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공간이란 베네치아 본토가 반달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넓은 바다를 말한다. 베네치아가 다른 도시

와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성격의 도시인 것처럼 베네치아 사람들도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우선 도시 전체의 인상을 확실히 포착하기 위해 서둘러 숙소를 나섰다. 그리고 안내자도 없이 동서남북의 방위만을 확인하면서 도시의 미로 속으로 들어섰다. 도시는 크고 작은 운하들이 이리저리 교차하고 있었고, 또 그 위로는 크고 작은 다리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 도시 전체가 얼마나 좁고 번잡한지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골목은 대개 두 팔을 벌리면 닿을 정도의 폭이다. 아주 좁은 곳에서는 두 팔을 옆구리에 대기만 해도 팔꿈치가 벽에 닿는다. 물론 가끔가다 좀 넓은 길도 있고, 여기저기 작은 광장도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모든 공간이 좁다고 할 수 있다.

[10월 9일]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근사한 날이었다! 키오자 맞은편에 있는 펠레스트리나를 방문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그곳에 '무라치'라고 하는, 바다에 맞서는 거대한 방벽을 건설 중이다. 사람들은 돌 블록으로 이 방벽을 쌓고 있다. 이것은 연안을 바다로부터 격리하는, '리도'라고 하는 길다란 ㉢ 지협을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연안은 오래된 자연의 산물이다. 먼저 밀물과 썰물의 조류와 대지의 상호작용에 이어서 태곳적 바다의 수면이 점차 낮아진 결과, 아드리아해의 위쪽 끝부분에 광활한 늪이 형성되었다. 그 늪은 밀물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지만 썰물 때에는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인간의 기술은 그 땅의 가장 높은 부분을 접수했으며, 그리하여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백 개의 섬으로 에워싸인 베네치아가 탄생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은 썰물 때에도 주요 지점에 전함을 댈 수 있도록 늪에다 깊은 운하를 ㉤ 준설하였다.

옛날 사람들이 지혜와 노력으로써 고안해 내고 실행한 것을, 이제는 현재의 우리가 그에 못지않은 지혜와 노력으로써 보존해야 할 것이다. 기다란 띠 모양의 물인 리도는 연안 호수를 바다와

갈라놓고 있는데,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두 곳뿐이다. 하나는 카스텔로 근처에 있고 또 하나는 그 맞은편 끝인 키오자 근처에 있다. 밀물은 보통 하루에 두 번씩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썰물도 하루에 두 번씩 나간다.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밀물 때에는 안쪽의 늪지대가 침수되는데, 가장 높은 곳은 물에 젖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그 존재가 눈에 보인다.

그러나 만일 바다가 새로운 길을 찾아 그 지협을 공격하며 제멋대로 드나든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리도와 펠레스트리나, 산피에트로 등지의 작은 마을들이 침수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바닷물이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삼켜 버려 그곳의 소통로도 막혀 버릴 것이다. 리도는 섬으로 변할 것이고, 지금은 그 배후에 있는 섬들이 지협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베네치아 사람들은 리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인간이 이미 ㉔ 점유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것을, 자연이 제멋대로 공격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파도가 유난히 높을 때는 바닷물이 단 두 곳으로만 들어올 수 있고, 다른 곳은 막혀 있다는 사실이 무척 다행스럽다. 아무리 맹렬하게 밀고 들어오려고 해도 바닷물은 들어올 수 없고, 몇 시간 후면 다시 썰물의 법칙에 따라 ㉕ 맹위를 누그러뜨린다.

어쨌든 베네치아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 나간다는 사실이 베네치아를 천 년 동안이나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고, 그들은 또 운하를 현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8. ㉔의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 ① 흥진비래(興盡悲來) ② 호사다마(好事多魔)
- ③ 와신상담(臥薪嘗膽) ④ 각주구검(刻舟求劍)
- ⑤ 전화위복(轉禍爲福)

9. ㉕의 '으로'와 쓰임이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신비한 빛이 발하는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 ② 고등학교 동창 모임 날짜를 이번에는 이달 중순으로 정했다.
- ③ 어머니께서는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신 대단한 분이다.
- ④ 그는 계약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정규직이 되었다.
- ⑤ 나는 이제 정말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너의 말을 믿지 않는다.

10. 밑줄 친 ㉖~㉙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㉖ : 촘촘하고 뽁뽁하게
- ② ㉗ : 두 개의 육지를 연결하는 좁고 잘록한 땅
- ③ ㉘ : 물의 깊이를 깊게 하여 배가 잘 드나들 수 있도록 하천이나 항만 등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냈다.
- ④ ㉙ : 어떤 장소를 차지하여 자리를 잡다.
- ⑤ ㉚ : 사나운 위세

11.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관적 성격이 강한 글의 갈래에 해당한다.
- ② 자기의 주장을 명확하게 밝혀 다른 사람들 설득하기 위한 글이다.
- ③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한다.
- ④ 효과적으로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주장의 종류는 다양할수록 좋다.
- ⑤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에 맞춰 글을 구성한다.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케냐 사람들이 크고 곧은 나무를 보호한 데에는 나무에 ㉠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 또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키쿠유 사람들은 베어지지 않고 서 있는 나무를 '숲의 ㉡ 벌목에 저항하는 나무'라는 뜻인 무레마키리티라 불렀으며, 베어진 나무들의 정령이 이 나무들에 깃들었다고 여겼다. 그리고 정령이 다른 나무로 옮겨 간 뒤에야 이 나무들을 벨 수 있었다. 사람들은 베어낼 나무에 나뭇가지를 기대어 놓았다가 다른 나무로 옮기거나, 나무를 베자마자 그 자리에 곧바로 또 다른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나무의 정령을 다른 나무로 옮겨 가게 했다. 그런 조심스러움이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은 것은 분명하다.

(나)

인류 문명이 시작된 뒤로 나무는 식량과 약재, 건축 재료였을 뿐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신과 연결되는 장소였다. 나무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생명체 가운데 하나이므로, 인류가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정한 종류의 나무들은 영적으로 중요하다. 가나 남부의 많은 공동체는 백단향과 이로코, 리아나를 성스럽게 인식한다. 특히 가나 은코란자와 말라위 일대에 있는 신성한 숲들과 요루바족 여신 오순에게 바쳐진 나이지리아 오쇼그보 근처의 숲은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유네스코에서 세계 유산으로 지정했다.

(다)

나무가 주는 그늘과 공간의 영적 울림 때문에 나무는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나무 아래 모여 앞일을 의논하고, 찬반이 갈리는 문제에 관해 부족 어른이 판단을 내리고는 한다. 따라서 특정한 나무가 한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키쿠유족은 자녀 양육이 끝난 사람들을 공동체 생활 양식의 수호자이자 지혜로운 ㉢ 후견인으로 여겼다. 따라서 그들은 중재자이자 판관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부족의 어른 자리에 앉아 시이기나무 막대를 쥐고 있었다.

그것은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표시였다. 이런 관례는 평화 협정에 ㉣ 조인하는 것만큼이나 ㉤ 구속력을 지녔고, 공동체 내부에서 그리고 공동체 끼리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신성한 숲과 그 나무와 숲에 부여된 영적이고도 상징적인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나무는 언제나 우리의 동반자였다.

(라)

우리가 길러야 하는, 자연에 대한 사랑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자연, 특히 야생의 모습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채운다. 우리가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을 보살피려면 그것과 직접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 자연을 보고 냄새 맡고 만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을 잊을 것이고, 우리 영혼도 시들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요즘 아이들은 자연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거나 나무 한 그루 심어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달을 즈음에는 이미 때가 늦었을 것이다. 신성한 숲은 한번 사라지면 결코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12.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행을 통해 체험하고 느낀 것을 생생하게 표현한 글이다.
- ②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개인의 주장을 적은 글이다.
- ③ 객관적 정보를 그 정보를 모르는 대상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쓴 글이다.
- ④ 형식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개인적인 서정이나 성찰을 산문으로 표현한 글이다.
- ⑤ 어떤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나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기 위하여 쓴 글이다.

13. 밑줄 친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산천초목이나 무생물 따위의 여러 가지 사물에 깃들어 있다는 혼령. 원시 종교의 숭배 대상 가운데 하나임.

- ② ㉞ : 멧갓이나 숲의 나무를 뺨.
- ③ ㉟ :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뒤를 돌보아 주는 사람
- ④ ㊱ : 국제법상 조약 체결 때 조약 당사국의 대표자가 조약문에 동의하여 서명하는 것
- ⑤ ㊲ :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함.

수능형 기출 문제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는 그 나무가 한 사람의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오래 살아온 강건한 유기체가 되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캄캄한 흙과 눈부신 햇살과 촉촉한 물기에서 양분을 얻는 그런 여정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도, 나무는 여전히 신비로운 구석이 있다. 그렇게 위엄 있고 영구적인 생명이 그토록 작고 여린 것에서 비롯될 수 있다니. ㉠ 뿌리는 아래로 가지는 위로 뻗은 모습은 아름답기만 하고, 그 복잡다단한 자연 변화는 우리의 과학 기술이 아무리 정교하게 발전해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나)

사펠리나무에서 나온 목재의 절반 이상이 연기로 사라진다는 사실에 나는 당혹스러웠다. 그 나무는 베어져 쓰러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비바람을 견디고 빗물에 흠뻑 젖고, 건기에도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지에는 온갖 종류의 곤충들이 살았다. 가끔 가지가 한두 개쯤 부러지기도 하고, 여러 동물과 새들이 몸통에 구멍을 뚫거나 속을 파먹을 수도 있지만 나무는 썩 없이 자라났다. 하지만 이제 그 나무는 없다. 살아 있기보다는 죽어야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사람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길러야 하는, 자연에 대한 사랑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자연, 특히 야생의 모습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채운다. 우리가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을 보살피려면 그것과 직접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 자연을 보고 냄새 맡고 만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을 잊을 것이고, 우리 영혼도 시들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요즘 아이들은 자연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거나 나무 한 그루 심어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달을 즈음에는 이미 때가 늦었을 것이다. 신성한 숲은 한번 사라지면 결코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1. (가)의 ㉠의 글쓴이의 태도와 시적 화자의 태도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산촌에 눈이오니 돌길이 무쳐세라.
시비를 여지마라, 날 초즈리 뉘 이시리.
밤중만 일편 명원이 그 벗인가 흐노라.
- ② 두류산 양단수를 네 듯고 이제 보니
도화 쓴 묶은 물에 산영조초 잠겼세라
아희야 무릉이 어디오 나는 옌가 흐노라.
- ③ 천만 리 머나먼 길히 고은 님 여희옵고
니 모습 들 디 업서 냇가에 안자시니,
저 물도 내 온 듯하여 우러 밤길 네뵈다.
- ④ 마음이 어린 후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에 어느 님 오리마는
지는 앞 부는 바람에 행여 권가 하노라.
- ⑤ 풍상이 섰거 친 날에 꺾 피운 황국화를
금분에 꺾 담아 옥당에 보니오니,
도리아, 꽃이온 양 마라, 님의 뜻을 알괘라.

2. (나)의 글쓴이가 자연을 대하는 관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강산 죠흔 경을 힘센이 닷틀 양이면
니 힘과 니 분으로 어이하여 엇들썬이.
진실로 금허리 업쓸씩 나도 두고 논이노라.
- ②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 절로 수 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그중에 절로 조란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 ③ 지당에 비 뿌리고 양류에 니 씨인 제,
사공은 어디 가고 뵈 빈 밭만 밷엇는고.
석양에 싹 일흔 골머기논 오락가락 흐노매.
- ④ 농암애 올라 보니 노안이 유명이로다.
인사이 변흔들 산천이썬 가실가.
암전에 모수 모구이 어제 본 듯하여라.
- ⑤ 청량산 육륙봉을 아느니 나와 백구
백구야 현사하라 못 미들손 도화 | 로다.
도화야 써나지 마로렘 어주자 알가 하노라.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안은 오래된 자연의 산물이다. 먼저 밀물과 썰물의 조류와 대지의 상호작용에 이어서 태곳적 바다의 수면이 점차 낮아진 결과, 아드리아해의 위쪽 끝부분에 광활한 늪이 형성되었다. 그 늪은 밀물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지만 썰물 때에는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인간의 기술은 그 땅의 가장 높은 부분을 접수했으며, 그리하여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백 개의 섬으로 에워싸인 베네치아가 탄생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은 썰물 때에도 주요 지점에 전함을 댈 수 있도록 늪에다 깊은 운하를 준설하였다.

옛날 사람들이 지혜와 노력으로써 고안해 내고 실행한 것을, 이제는 현재의 우리가 그에 못지않은 지혜와 노력으로써 보존해야 할 것이다. 기다란 띠 모양의 물인 리도는 연안 호수를 바다와 갈라놓고 있는데,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두 곳뿐이다. 하나는 카스텔로 근처에 있고 또 하나는 그 맞은편 끝인 키오자 근처에 있다. 밀물은 보통 하루에 두 번씩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썰물도 하루에 두 번씩 나간다.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밀물 때에는 안쪽의 늪지대가 침수되는데, 가장 높은 곳은 물에 젖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그 존재가 눈에 보인다.

그러나 만일 바다가 새로운 길을 찾아 그 지협을 공격하며 제멋대로 드나든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리도와 펠레스트리나, 산피에트로 등지의 작은 마을들이 침수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바닷물이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삼켜 버려 그곳의 소통로도 막혀 버릴 것이다. 리도는 섬으로 변할 것이고, 지금은 그 배후에 있는 섬들이 지협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한 사태가 막치지 않도록 베네치아 사람들은 리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인간이 이미 점유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것을, 자연이 제멋대로 공격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파도가 유난히 높을 때는 바닷물이 단 두 곳으로만 들어올 수 있고, 다른 곳은 막혀 있다는 사실이 무척 다행스럽다. 아무리 맹렬하게 밀고 들어오려고 해도 바닷물은 들어올 수 없고, 몇 시간 후면 다시 썰물의 법칙에 따라 맹위를 누그러뜨린다.

3. <보기>의 밑줄 친 ㉠과 윗글의 글쓴이(㉡)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동양에서의 자연은 객체나 대상 혹은 기계적인 법칙에 지배되는 자연이 아니다. 자연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발전시킨 철학은 ㉠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아울러 이르는 노장사상에 잘 나타나고 있다. 노장사상에서는 자연과의 조화와 합일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 ① ㉠은 자연을 정복할 수는 없지만, 극복할 수는 있다고 보았다.
- ② ㉡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는 베네치아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자연에 인위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겼다.
- ④ ㉡은 ㉠과 달리 주어진 자연 안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⑤ ㉠과 ㉡은 모두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자연이 우위에 있다고 여겼다.

4. <보기>와 윗글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한 젊은이가 프랑스 여행길에 물을 찾아 폐허가 된 마을을 헤매며 불모의 땅을 걸어가다가 양치기 노인을 만나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는다.

다음 날 그는 양치기 노인이 55세의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인물이며 외떨어진 산에서 양을 키우고 홀로 황무지에 나무를 심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엘제아르 부피에는 나무가 부족하여 땅이 죽어가고 주민들이 포악해진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땅이 아지만 산 곳곳에 떡갈나무 씨를 뿌려 가꾼다.

세월이 흘러 그곳을 다시 찾은 젊은이는 그 지역이 불모의 땅에서 울창한 숲으로 변하였고 주민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희망의 빛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된다.

- 「나무를 심은 사람」

- ① 거대한 자연 앞에 놓인 인간이란 존재의 작음을 인정하고 있다.
- ② 자연을 인간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 ③ 자연을 조화의 대상으로 여기고 인위적인 변화를 가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 ④ 열악한 자연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연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며 닦쳐올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서술형 기출 문제

필수 유형

제시된 본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표현법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글의 구절에 담긴 의미를 꼼꼼히 이해하고 문단의 중심 내용을 암기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된 표현법, 표현법이 드러나는 문장에 대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9월 29일, 미카엘 제 전야]

베네치아에서 무엇보다도 내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민중이다. 필연적이고 무의식적인 존재인 거대한 대중 말이다. 이들 일족은 재미 삼아 이 섬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그들과 합류하게 된 것도 우연한 계기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고난이 가져다준 교훈에 따라 그들은 가장 불리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안전지대를 찾은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자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이점이 되었고, 북쪽의 전 지역이 여전히 암흑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현명하게 대처했다. 따라서 그들이 번창하고 부유해 진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점차 집들이 뻥뻥이 들어서고, 모래땅과 늪지는 암석처럼 단단한 지반으로 바뀌어 갔다. 집들은 조밀하게 심어진 나무들처럼 높이 솟구쳤다. 옆으로 확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한 치의 땅이라도 탐이 나는데, 처음부터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골목길도, 양편의 집들을 분리하고 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폭으로 밖에 내지 않았다. 어쨌거나 그들에게는 물이 거리와 광장과 산책로를 대신했다.

뱀처럼 구불거리는 대운하는 세계의 어떤 도로에도 손색이 없고, 세계의 어떤 광장도 산마르코 광장 앞의 공간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공간이란 베네치아 본토가 반달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넓은 바다를 말한다. 베네치아가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성격의 도시인 것처럼 베네치아 사람들도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되

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우선 도시 전체의 인상을 확실히 포착하기 위해 서둘러 숙소를 나섰다. 그리고 안내자도 없이 동서남북의 방위만을 확인하면서 도시의 미로 속으로 들어섰다. 도시는 크고 작은 운하들이 이리저리 교차하고 있었고, 또 그 위로는 크고 작은 다리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 도시 전체가 얼마나 좁고 번잡한지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골목은 대개 두 팔을 벌리면 닿을 정도의 폭이다. 아주 좁은 곳에서는 두 팔을 옆구리에 대기만 해도 팔꿈치가 벽에 닿는다. 물론 가끔가다 좀 넓은 길도 있고, 여기저기 작은 광장도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모든 공간이 좁다고 할 수 있다.

[10월 9일]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근사한 날이었다! 키오자 맞은편에 있는 펠레스트리나를 방문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그곳에 '무라치'라고 하는, 바다에 맞서는 거대한 방벽을 건설 중이다. 사람들은 돌 블록으로 이 방벽을 쌓고 있다. 이것은 연안을 바다로부터 격리하는, '리도'라고 하는 길다란 지협을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연안은 오래된 자연의 산물이다. 먼저 밀물과 썰물의 조류와 대지의 상호작용에 이어서 태곳적 바다의 수면이 점차 낮아진 결과, 아드리아해의 위쪽 끝부분에 광활한 늪이 형성되었다. 그 늪은 밀물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지만 썰물 때에는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인간의 기술은 그 땅의 가장 높은 부분을 접수했으며, 그리하여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백 개의 섬으로 에워싸인 베네치아가 탄생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은 썰물 때에도 주요 지점에 전함을 댈 수 있도록 늪에다 깊은 운하를 준설하였다.

옛날 사람들이 지혜와 노력으로써 고안해 내고 실행한 것을, 이제는 현재의 우리가 그에 못지않은 지혜와 노력으로써 보존해야 할 것이다. 기다란 띠 모양의 물인 리도는 연안 호수를 바다와 갈라놓고 있는데,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두 곳뿐이다. 하나는 카스텔로 근처에 있고 또

나무는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나무 아래 모여 앞일을 의논하고, 찬반이 갈리는 문제에 관해 부족 어른이 판단을 내리고는 한다. 따라서 특정한 나무가 한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키쿠유족은 자녀 양육이 끝난 사람들을 공동체 생활 양식의 수호자이자 지혜로운 후견인으로 여겼다. 따라서 그들은 중재자이자 판관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부족의 어른 자리에 앉아 시이기나무 막대를 쥐고 있었다. 그것은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표시였다. 이런 관례는 평화 협정에 조인하는 것만큼이나 구속력을 지녔고, 공동체 내부에서 그리고 공동체끼리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신성한 숲과 그 나무와 숲에 부여된 영적이고도 상징적인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나무는 언제나 우리의 동반자였다.

(라)

사펠리나무에서 나온 목재의 절반 이상이 연기로 사라진다는 사실에 나는 당혹스러웠다. 그 나무는 베어져 쓰러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비바람을 견디고 빗물에 흠뻑 젖고, 건기에도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지에는 온갖 종류의 곤충들이 살았다. 가끔 가지가 한두 개쯤 부러지기도 하고, 여러 동물과 새들이 몸통에 구멍을 뚫거나 속을 파먹을 수도 있지만 나무는 썩 없이 자라났다. 하지만 이제 그 나무는 없다. 살아 있기보다는 죽어야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사람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마)

우리가 길러야 하는, 자연에 대한 사랑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자연, 특히 야생의 모습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채운다. 우리가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을 보살피려면 그것과 직접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 자연을 보고 냄새 맡고 만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을 잊을 것이고, 우리 영혼도 시들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요즘 아이들은 자연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거나 나무 한 그루 심어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달을 즈음에는 이미 때가 늦었을 것이다.

신성한 숲은 한번 사라지면 결코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나) 통해 알 수 있는 나무의 역할을 모두 찾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 ‘나무는 ~의 역할을 한다.’의 형태로 쓸 것
- 나무의 역할을 여섯 가지 찾아 쓸 것

4. 특정한 지역의 숲이 ㉠으로 취급되는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조건>

-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밝힐 것.
- 그 중요성과 관련된 나무의 구체적 역할 세 가지를 제시할 것.
- 문장의 형식은 ‘나무는 ~(으)로 활용되었기에 ~(인)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 되었다.’의 형식으로 작성할 것
- 나무의 역할을 세 가지를 초과하여 제시할 경우 그 부분은 오답으로 처리함.

5. 윗글에서 <보기>의 설명과 관련이 깊은 두 문장을 찾아 그대로 쓰고, 자연스러운 순서로 재배열하여 한 문장으로 쓰시오.

<보기>

정상적인 언어 배열 순서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강한 인상을 주려는 표현 기법

정답 및 해설

내신형 기출 문제

1. <답> ⑤

'세계의 어떤 광장도 산마르코 광장 앞의 공간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공간이란 베네치아 본토가 반달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넓은 바다를 말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① '옆으로 확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와 '처음부터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골목길도,'로 보아 높이라는 공간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좁기 때문에 높이 지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 ② '밀물과 썰물의 조류와 대지의 상호작용에 이어서 태곳적 바다의 수면이 점차 낮아진 결과, 아드리아해의 위쪽 끝부분에 광활한 늪이 형성되었다.'로 보아 광활한 늪은 베네치아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밀물 때에는 안쪽의 늪지대가 침수되는데, 가장 높은 곳은 물에 젖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그 존재가 눈에 보인다.'에서 '안쪽'이란 리도의 안쪽을 말한다. 따라서 '아드리아해의 위쪽 가장 높은 곳'과는 관련이 없다.
- ④ '리도'를 통해 형성된 곳 외의 길로 바닷물이 드나들게 될 경우 '리도와 펠레스트리나, 산피에트로 등지의 작은 마을들이 침수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바닷물이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삼켜 버려 그곳의 소통로도 막혀 버릴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베네치아 본토까지 바닷물이 들어온다는 설명은 확인할 수 없다.

2. <답> ③

'인간이 이미 점유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 것을, 자연이 제멋대로 공격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를 통해 베네치아인들이 자연을 개척, 정복하였음을 알 수 있고, 글쓴이는 이러한 베네치아인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우월한 존재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 ① 글쓴이는 자연을 보존하는 길에 대해 역설하고 있지 않다.
- ② 글쓴이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맞지만, <보기>의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이고 정복 지향적인 자연관을 나타낸다.'로 보아 자연과 인간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보기>는 더 우월한 존재인 인간이 자연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인간 중심주의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변화하여 자연에 순응하려 노력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⑤ 글쓴이는 자연을 인간에 의해 정복, 지배당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자연에 인격을 부여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 <답> ①

베네치아 사람들은 연안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 ② '연안을 바다로부터 격리하는, '리도'라고 하는 길다란 지협을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그러나 만일 바다가 새로운 길을 찾아 그 지협을 공격하며 제멋대로 드나들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리도와 펠레스트리나, 산피에트로 등지의 작은 마을들이 침수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바닷물이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삼켜 버려 그곳의 소통로도 막혀 버릴 것이다. 리도는 섬으로 변할 것이고, 지금은 그 배후에 있는 섬들이 지협으로 변할 것이다.'를 통해 리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바닷물이 다른 길로 드나들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키오자 맞은편에 있는 펠레스트리나를 방문했다.'를 통해 글쓴이는 베네치아의 펠레스트리나를 방문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기다란 띠 모양의 물인 리도는 연안 호수를 바다와 갈라놓고 있는데,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두 곳뿐이다.'를 통해 리도는 연안 호수와 바다를 가르고 있으며,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답> ②

㉠의 앞에 제시된 '집들이 뻑뻑이 들어서고'와 ㉡의 뒤에 제시된 '집들은 조밀하게 심어진 나무들처럼 높이 솟구쳤다. 옆으로 확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를 통해 모래땅과 늪지는 베네치아 사람들이 인공 지반을 건설하여 단단한 지반으로 바뀌어 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① ㉠에 제시된 재미 삼아 이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뒤에 제시된 '고난이 가져다준 교훈에 따라 그들은 가장 불리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안전지대를 찾은 것이다.'를 통해 이민족의 위협이라는 고난을 피해 이주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에서는 기행문이라는 글의 종류와 관련하여 글쓴이의 여행 일정에 해당하는 여정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에서는 제한적 공간에 건설된 도시인 베네치아에 대한 글쓴이의 전체적인 인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에서 말하는 '옛날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은 대부분 늪지대였던 베네치아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 즉, 베네치아의 선조들이 자연을 정복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지혜와 노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은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기는 글쓴이의 가치관과 관련이 드러나는 말로 볼 수 있다.

5. <답> ③

(다)에서는 베네치아 사람들이 자연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드러날 뿐, 글쓴이가 자연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① '북쪽의 전 지역이 여전히 암흑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현명하게 대처했다. 따라서 그들이 번창하고 부유해 진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에서 베네치아 민중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 평가를 알 수 있고,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하여 오히려 부를 누리는 베네치아 민중의 상황은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의미의 '전화위복(轉禍爲福)'과 어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식사를 마치고 우선 도시 전체의 인상을 확실히 포착하기 위해 서둘러 숙소를 나섰다.'에서 여

정이, '도시는 크고 작은 ~ 벽에 닿는다.'에서 견문과 베네치아의 지리적 특성이 드러난다.

④ 아드리아해의 위쪽 광활한 늪을 인간의 기술로 접수하여 개척했다는 것이 베네치아의 탄생 과정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를 통해 글쓴이가 베네치아가 밀물, 썰물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지리적 특성과 베네치아의 역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라)에 제시된 리도가 없거나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리도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고, '그러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베네치아 사람들은 리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를 통해 글쓴이의 당부를 알 수 있다.

6. <답> ⑤

'나무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생명체 가운데 하나이므로, 인류가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로 보아 나무를 종교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은 나무가 식량, 약재, 건축 재료로 쓰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무가 가장 오래되고 큰 생명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① '특정한 나무가 한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나무가 주는 그늘과 공간의 영적 울림 때문에 나무는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나무 아래 모여 앞일을 의논하고, 찬반이 갈리는 문제에 관해 부족 어른이 판단을 내리고는 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우리가 길러야 하는, 자연에 대한 사랑은 경험에서 비롯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케냐 사람들이 크고 곧은 나무를 보호한 데에는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 또한 영향을 미쳤다.'와 '그런 조심스러움이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은 것은 분명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7. <답> ②

㉠ '인류 문명이 시작된 뒤로 나무는 식량과 약재, 건축 재료였을 뿐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신과 연결되는 장소였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㉔ '나는 그 나무가 한 사람의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오래 살아온 강건한 유기체가 되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㉕ '사펠리나무에서 나온 목재의 절반 이상이 연기로 사라진다는 사실에 나는 당혹스러웠다.'를 통해 나무의 대부분이 목재로 활용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㉖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집 가까이에 있는 무화과나무 근처에서는 땀감으로 쓸 잔가지를 주워 오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이르셨다.'를 통해 잔가지를 주워서 땀감으로 사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8 <답> ⑤

㉑에서는 고난을 피해 이주한 사람들이 이주한 지역의 이점을 통해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이 있는 한자 성어는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의미의 '전화위복(轉禍爲福)'이다.

① '흥진비래(興盡悲來)'는 세상일의 순환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은 '전화위복(轉禍爲福)'과 유사하지만,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베네치아 사람들이 겪은 일과 비교하였을 때 어울리지 않는 한자 성어로 볼 수 있다.

② '호사다마(好事多魔)'는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음.'을 의미하는 말로, ㉑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③ '와신상담(臥薪嘗膽)'은 '불편한 쉼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는 ㉑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④ '각주구검(刻舟求劍)'은 '유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로 ㉑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9. <답> ③

㉑에서 '으로'는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이와 가장 비슷한 쓰임이 드러나

는 것은 '자식'이 변화한 결과인 '훌륭한 사람'의 뒤에 붙은 ③의 '으로'이다.

①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시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 조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0. <답> ④

'어떤 장소를 차지하여 자리를 잡다.'는 '점거하다'의 의미이다. '점유하다'의 의미는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하다.'이다.

①, ②, ③, ⑤ 적절한 사전적 의미에 해당한다.

11. <답> ④

논설문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장과 여러 개의 근거를 통해 구성된다. 주장이 다양해질 경우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독자가 뚜렷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효과적으로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주장이 아니라 근거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좋다.

① 논설문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글쓴이가 생각하는 주관적 의견을 드러내는 글이기 때문에 주관적 성격이 강하다.

② 논설문은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밝혀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근거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 사실 중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를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으로 구성할 경우, 독자는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 글쓴이의 주장에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⑤ 논설문은 일반적으로 화제를 제시하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서론'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본론'과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강조하는 '결론'으로 이루어진다.

12. <답> ②

윗글은 인간의 무분별한 벌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논설문이다.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할 목적으로 주장을 드러내는 글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① 여행을 통해 체험하고 느낀 것을 표현한 글은 기행문이다. 윗글은 논설문이다.
- ③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설명문이다. 윗글은 논설문이다.
- ④ 형식의 제약 없이 개인적 서정과 성찰을 산문으로 표현한 글은 수필이다. 윗글은 논설문이다.
- ⑤ 연구 결과나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기 위한 글은 보고서이다. 윗글은 논설문이다.

13. <답> ⑤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함.’은 ‘구속’의 의미이다. ‘구속력’의 의미는 ‘어떤 행위를 강제로 못 하게 하는 힘’이다.

- ①, ②, ③, ④ 적절한 사전적 의미에 해당한다.

수능형 기출 문제

1. <답> ②

㉠에서는 나무의 모습에 대한 글쓴이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다. 이와 가장 유사한 태도는 ‘두류산 양단수’를 이상적 공간을 의미하는 ‘무릉’이라고 표현하는 ②의 시적 화자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 ① 눈이 온 산촌에서 자신을 찾을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자연 속에 사는 것을 고독하게 여기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날 뿐,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천만 리나 되는 먼 곳에 임을 여윈 화자가 냇가에 앉아 슬퍼하고 있는 내용일 뿐,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④ 만중운산에 있으면서도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날 뿐,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황국화’를 받은 화자가 그 뜻을 이해하고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을 뿐,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2. <답> ③

③은 ‘빈 배, 짝 잃은 갈매기’를 통해 임과 이별한 화자의 쓸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자연을 친화와 예찬의 대상으로 여기는 (나)의 글쓴이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 ① 자연을 의미하는 ‘강산’의 좋은 경치 속의 화자가 ‘나도 두고 논이노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나)의 글쓴이와 마찬가지로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② 산이 저절로 생겨나고 물이 저절로 흐르듯이 자신의 늠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화자의 태도로 보아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나)의 글쓴이와 마찬가지로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나는 것에 해당한다.
- ④ 변하지 않는 산천에 대한 예찬을 통해 (나)의 글쓴이와 마찬가지로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 ⑤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자연 속 공간인 청량산 육륙봉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 도화가 냇물을 따라 흘러가지 않길 바라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이는 (나)의 글쓰이와 마찬가지로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나는 것에 해당한다.

3. <답> ③

자연을 비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은 ㉠은 자연을 정복과 개척의 대상으로 여긴 ㉡과 달리 자연에 인위적 변화를 가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겼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① ㉠이 자연과의 조화 및 합일을 이상적으로 여겼다는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은 자연이 정복의 대상도, 극복의 대상도 아니라고 여겼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윗글의 베네치아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늪이었던 곳에 지반을 건설하는 개척, 정복 행위를 통해 도시를 이룩하였고 ㉡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베네치아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다는 설명과 글쓰이과 자연과의 조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긴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주어진 자연 안에서가 아니라 주어진 자연을 정복하여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⑤ ㉠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지를 따지기 보다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여겼으며, ㉡은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으며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여겼다.

4. <답> ④

윗글에서는 지반이 약한 모래나 늪으로 이루어진 자연환경을, <보기>에서는 나무가 부족하여 땅이 황무지가 된 자연환경을 알 수 있고, 이들은 각각 튼튼한 인위적 지반을 건설하는 것과 끊임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처한 자연환경을 개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윗글은 자연을 정복한 베네치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고 <보기>는 자연을 개척한 '엘제아르 부피에'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모두 인간이 자연에 변화를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이 담긴 태도로 볼 수 있다.

② 윗글과 <보기>는 모두 인간의 행복을 목적으로 자연에 변화를 가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보기>에서 자연을 활용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윗글은 늪에 지반을 건설하고 도시를 이룩하여 살아가는 변화를, <보기>는 불모의 땅에 나무를 심는 변화를 가하고 있다.

⑤ 윗글에서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과 리도에 문제가 생겨 마을이 침수되는 것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나지만, <보기>에서는 닥쳐올 수 있는 재난이 아니라, 현재의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활동만이 드러나 있다.

서술형 기출 문제

1. <답> 물론, 있다.
2. <답> ㉠의 중심 내용은 리도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내용을 서술하기 위해 문제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리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제시하는 전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3. <답> 나무는 식량, 약재, 건축 재료,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신과 연결되는 장소의 역할을 한다.
4. <답> 나무는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신과 연결하는 존재로 활용되었기에 영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 되었다.
5. <답> 하지만 이제 그 나무는 없다. 살아 있기 보다는 죽어야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사람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살아 있기보다는 죽어야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사람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없다.

서지정보
 저자 이태훈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2262-0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2.01.11
 가격 1500원

